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23〉

움직이는 것이 정이다
〈定〉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정(定)입니까?"
조주 스님이 대답했다.
"부정(不定)이야."
학승이 물었다.
"어찌해서 부정(不定)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살아있는 물건이야, 살아있는 물건."

問 如何是定
師云 不定
學云 爲什麽不定
師云 活物活物

정은 삼매를 말한다. 원래 정(定)자는 '고정된다' '정해졌다'라는 의미이다. 정신이 하나에 고정돼 있어서 다른 것이 침범할 틈이 없는 것이 '정'이다. 부처님으로부터 모든 선지식은 한결같이 선정을 닦을 것을 강조했다. 선정삼매는 전생의 습기를 녹이고 깨달음을 얻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주 스님은 정하지 않는 것이 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조주 스님은 정에 대한 입장을 본질적 측면을 들어서 강하게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분히 선적이다. 즉, 자성은 본래 형체가 없어서 항상 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래부터 삼매에 들어가 있다. 따라서 따로 정에 들어가는 수행은 필요 없고 오로지 살아있는 물건답게 움직이는 것이 진정한 정이라는 것이다.

정을 닦는 것은 좋으나, 행여 일평생 움직이지 않고 정에 들어가 있는 것이 최상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오점을 지적한 것이다. 사람은 움직이고 일함으로써 스스로 존재가치가 빛나는 것이다. 그런데 정에 들어가 죽은 자처럼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기만 한다면 도대체 산 자와 죽은 자의 차이가 무엇이겠는가? 그런 멸진정(滅盡定)은 바람직스럽지 않는 삶의 태도라고 강하게 질책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조주 스님은 육조 스님의 뜻과도 부합한다. 육조 스님은 〈육조단경〉에서 "깨끗함은 모양이 없거늘 도리어 깨끗하다는 모양을 내세워 이것을 공부라고 한다면 이러한 소견을 내는 자는 자기의 본래 성품을 가로막아 도리어 깨끗함에 묶이는 것이니라"라고 말해 정에 빠져 있는 자들을 경계했던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모든 것에 따라다니지 않을 때는 어떠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렇게 되는 것이 합당한 거야."
학승이 말했다.
"그것이 학인의 본분사였군요."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것 봐. 벌써 따라붙었잖아, 따라붙었어."

問 不隨諸有時如何
師云 合與麽
學云 莫便是學人本分事
師云 隨也隨也

학인의 본분사는 언제나 항상 수행하는 자세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사람의 습기는 다겁을 윤회하면서 쌓아온 결과이기 때문에 10~20년 수행으로 깨끗한 불성과 같은 행동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이다. 진정한 수행은 한번 깨닫고 평생 부처의 행을 하는 것이다.

부처의 행을 수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체에 유혹되지 않는 것이다. 세간의 모든 개념은 하나의 헛된 주장이고, 생각이고, 약속이다. 그런 것이 절대 진실일 수는 없다. 따라서 그런 허망한 개념 어떤 것에도 유혹되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돌아가셨다 해도 마음이 동요될 필요는 없다. 다만 자식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다할 뿐, 마음은 고요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죽음과 삶은 본래 없기 때문이다.

부모가 돌아가셔도 동요될 필요는 없다

해야 할 도리 다할 뿐 삶 · 죽음은 본래 없는 것

이렇게 일체에 유혹되지 않는 것이 바로 부처의 길을 가는 것이다. 조주 스님을 방문했던 학인도 그러한 수행을 하고 있었으므로 조주 스님께 점검 부탁 차 질문했다. 여기에 대해 조주 스님도 '일체에 따라가지 않는 것이 합당한 것'이라고 긍정해 줬다. 그러자, 학인이 "네, 그렇군요. 그것이 학인의 본분사임을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자, 조주 스님은 직하에서 예리하게 지적해줬다. "그것 봐, 자네는 지금 '그것이 학인의 본분사'라고 단정하고 있잖아, 그렇게 되면 그것이 곧 따라간 것이 아니고 뭐겠어. 매사 조심해야 돼"라는 점검을 내려준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옛 사람은 30년간 하나의 활과 두 개의 화살로써 단지 반 개(半箇)의 성인(聖人) 밖에 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온전히 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 스님은 불쑥 일어나 나가버렸다.

問 古人三十年一張弓兩下箭 只射得半箇聖人
今日請師全射
師便起去

〈벽암록〉 81칙 평창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삼평 스님이 처음에 석공 화상에게 갔다. 삼평이 거의 다 다가오는 것을 본 석공은 곧 활을 쏘아댈 자세를 취하면서 말했다.
"화살 보아라."
그러자 삼평은 가슴을 활짝 열어놓고 "살인(殺人) 화살입니까, 활인(活人) 화살입니까?"
하고 반문했다. 석공은 곧 활줄을 세 번 퉁겼고, 삼평은 곧 예배했다. 석공이 말하길 "30년 동안 활 하나와 두 개의 화살로 오늘에야 비로소 겨우 반 개의 성인을 쏠 수 있었군"하고 활과 화살을 꺾어버렸다.

이 고사에서 석공 스님은 오랜만에 삼평 스님과 같은 걸출한 선객을 만난 것을 기뻐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석공 스님은 삼평 스님을 성인(聖人)이라고까지 추켜세워 말한 것만 보아도 삼평 스님을 매우 유망하게 봤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석공이 자신의 선적 가르침을 다만 반 개의 성인을 쏜 것이라고 말한 것은 삼평의 자질은 원래부터 부처이고 부처는 형체가 없기 때문에 온전히 다 적중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석공은 다만 활줄 3번의 퉁김을 통해 삼평의 잠자고 있던 일부분을 깨웠을 뿐이다. 그래서 반 개를 맞혔다고 말한 것이다.

석공이 세 번 활줄을 퉁긴 것은 우선 삼평이 다른 납자와 다르게 가슴을 활짝 내밀고 그 화살이 살인 화살인가, 활인 화살인가 묻는 것부터 심상치 않는 기백이 있음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석공은 저런 자라면 한번 화살을 날려 볼만 하겠구나 하고 내심 생각하게 된 것이다.

세 번의 활줄 퉁김은 선악, 빈부, 중생과 부처, 늘어남과 줄어듦, 생과 사 등의 양변을 떠난 제3의 화살을 날린 것이다. 그런데 뜻밖에 삼평이 '제3의 뜻'을 알아채고 즉시 예배를 했으므로 석공은 참으로 신기하게 생각한 것이다. 30년을 기다려도 이렇게 즉시 알아듣는 인재를 만나지 못했는데, 비로소 인재를 만났으니 석공은 할 일을 다 한 것이다. 그래서 활과 화살을 부러뜨려버린 것이다.

이러한 선적 행위는 즉석에서 나오는 것이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조주 스님은 노련한 노승이므로 학인에게 이렇게 명쾌한 가르침을 줄 수 있었던 것이다.

■ 무불선원 선원장

김호귀 교수의 **선어록 해제** ❺ 입도안심요방편법문

무작 · 무원 · 무상이 참된 해탈
〈無作〉 〈無願〉 〈無相〉

보리달마의 선법을 계승한 제2조 혜가를 비롯해 제3조 승찬의 시대까지는 몇몇 제자만 따랐던 유행생활의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제4조 도신 시대부터는 500여 대중이 본격적으로 정착생활을 시작해 명실상부 선종이라는 교단이 형성됐다. 이것이 이후 제5조 홍인의 선법과 더불어 출현한 소위 동산법문(東山法門)이다. 정착생활에 따른 갖가지 대중생활에 대한 직무와 규범이 등장했으며, 사찰의 자급자족 생활에 근거한 작무의 의무화가 도입됐다.

제4조 도신에 대한 자료로는 〈속고승전〉 권26 및 돈황 출토의 〈능가사자기〉가 도움이 된다. 도신에게 〈보살계법〉 1권과 〈입도안심요방편법문〉 2권 등의 저술이 있었다고 한다.

제4조 도신 대사

〈능가사자기〉(716)는 돈황본 자료 페리오 3294 · 3537 · 3437 · 3703 · 4272 등에 해당하는데 태행산 정각(淨覺)의 찬술이다.

4권 〈능가경〉을 전수한 계통의 전등사서로서 그 번역자인 구나발타라를 중국 선종의 초조로 내세운다. 이로써 초기 중국선종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했다. 그 가운데 제4조 도신장에 수록돼 있는 〈입도안심요방편법문〉을 통해 도신의 선사상을 엿볼 수가 있다. 도신의 선법은 좌선을 통한 일행삼매의 실천이었다. 도신의 법요는 〈능가경〉의 제불심(諸佛心)을 제일로 간주하는 것에 의거하며 〈문수설반야경〉의 일행삼매에 의거한다는 기록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행삼매는 일상삼매(一相三昧)이기도 한데 좌선과 염불이 실천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입도안심요방편법문〉 처음 부분의 '나의 법요는 〈능가경〉의 제불심제일(諸佛心第一)에 의한다'는 기록은 도신의 선법이 〈능가경〉 권1의 게송에서 말한 '대승의 모든 바라밀실천은 제불심을 첫째로 간주한다'는 것에 기초한 것임을 보여준다. 또한 '〈문수설반야경〉의 일행삼매에 의한다'는 것은 제불이 마음을 근본으로 하고 있음을 기초해 일행삼매에 들어간 사람은 항하의 모래 수와 같이 무수한 부처와 유일한 이법의 세계가 일여함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도신은 제불의 마음을 근본으로 해 일행삼매의 경지에 있는 수행자를 예시해 '대저 신심방촌(身心方寸) 거족하족(擧足下足)이 항상 도량에 머문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것은 자기의 평소생활을 되돌아보고 말한 것이다. 도신은 일거수일투족 도를 실천하는 경지에 이르는 수행을 보여주는 데에서 〈보현관경〉을 인용하고, 단좌해 실상을 염하고 부처를 염하여 그것을 지속시켜 마음을 청정하게 하면 그것이 곧 부처를 염하는 것이고 마음을 염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임종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관심수행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다만 자연에 맡겨라"라고 말한다. 또한 "서방을 향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하는 질문에 대해 "만약 자심이 불생불멸하여 청정함을 알아차리면 곧 그곳이 불국토인데 굳이 서방을 향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말한다.

"중생은 그대로 공이다. 따라서 중생이 멸하여 공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닌 본질적인 공임을 깨치는 것이다. 대승 수행자는 공을 배우는 것을 깨침으로 삼지만 처음 수행하는 사람이 단지 공을 아는 것만으로는 진실한 공을 깨치지 못한다. 수행해 진실한 공을 파악한 사람은 공과 공하지 않는 것과의 구별을 하지 않고 분별적인 관념을 가지지도 않는다"고 간절하게 중생이 그대로 공임을 가르치고 있다.

또한 초학자들에 대한 좌선의 방법과 믿음을 내 수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무생(無生)의 올바른 이치를 깨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어 마음에 경계를 반연해 번뇌가 일어날 때 그 번뇌가 일어나는 도리를 관찰하면 필경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방법을 제시한다. 초학자로서 좌선간심(坐禪看心)하려는 사람들에 대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경지의 좌선방법을 보여준다. 그리고 불성을 깨친 사람은 대승의 수행자, 도를 깨달은 사람, 진리를 안 사람, 달인, 본성을 알아차린 사람이라고 해 사람이 본래 갖추고 있는 성스러운 마음에 의해 불성이 자각되는 차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사신(捨身)의 법에 대해 자신의 몸을 통해 마음과 경계가 분명한 도리를 보는 것이라고 말하고 "경전에서는 공하여 무작(無作), 무원(無願), 무상(無相)하게 되는 것이 곧 참된 해탈이라고 말한다"라고 결론짓는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교육과학기술부허가 공익법인 한국평생교육기구
보건식품처방사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 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교육과목	교육기간
·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 자연치유의학 · 식품영양보충학 ·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 약용식물학, 총 7개 과목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표정관리 및 웃음치료, 최면요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건강식품업소탐방,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교육생 상시 모집

중앙교육원 – 홈페이지 ***www.klle.or.kr***
접수처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 수납처 : **한국보건교육원** (신한은행 100-025-095930)
문 의 : Tel. 02)3147-2020. 02)393-5111

지부교육원

영남교육원	055-543-3155	부산교육원	051-441-0111	울산교육원	052-260-1037
호남교육원	063-254-5529	지리산연수원	063-635-5112	제주교육원	064-755-7588
대구교육원	053-566-1116	해운대교육원	051-757-9990	충청북부교육원	043-263-9966
광주교육원	062-672-5432	경남서부교육원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모두 교환해 쓰십시오"

1. **'적중도'**와 **'효과성'**을 최고로 달성시킨 **'2010 완결보정판'** 육임 **상담용 종합CD프로그램** 입니다. 기존 판매된 「**Ⅰ · Ⅱ · Ⅲ · 완결판**」과 실비로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완벽합니다. 모두 교환해 쓰십시오.
2. 신규 구입 가격은 500만원입니다. 매일 매시간별 방문자에 대한 **시보(時報) · 래정(來情) · 특기정황**은 물론 **작사귀/병귀/신변 가택부정/산소탈**이 세세할 뿐 아니라 **재(齊)의 효과여부** 및 **예방법**까지 적시되어 있어 **신뢰성을** 담보 하고 있습니다.
3. 「**육임활용서책**」 만을 구입 · 교환하실 분은 옆 라벨에 적시된 – **수록활용서목록** – 중에서 고르십시오. **각 최정련 증보 · 개정**되어 가히 **'비급'**이라 할 만 합니다.
4. 육임종합학습서 **'효사육임강론'** 上 · 下 권도 5월말 현재 「**2010증보완결판**」으로 나와 실비 교환중에 있습니다.
5. 방문자별 각 사정 **자동적시 화면처리** / 전체 **원터치** 기능 / **초보 · 문외한**도 **즉시적 활용 성과획득보장** / **미리** 보고 **먼저 판단**하며 / **예비성(메모)** 또한 백미 입니다!

구입 · 승인 · 교환 안내 : 051) 908-8683 담당 : 진 민 경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 총재 고복자 효사 배상
www.taotemple.net